

보도자료

네빈 알라닥의 『모션 라인 Motion Lines』

2022.5. 25(Wed) - 7. 24(Sun)

- 네빈 알라닥의 『모션 라인』, 위기와 재난의 시기를 거친 현 시대에 전면적인 인식 전환의 틀을 제시하다.
- 베를린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 네빈 알라닥의 국내 첫 개인전 『모션 라인 Motion Lines』
-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네빈 알라닥의 『모션 라인』
- 전시 『모션 라인』은 영상,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리의 가능성을 탐구
- “모션(동작)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진행 상태를, 라인(선)은 어떤 한계를 정의하면서 새로운 패턴과 장소를 만든다. 모션 라인은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 다채로운 색채와 패턴, 기하학적 도형의 충돌이 생성하는 새로운 리듬과 생생한 진동을 감각할 수 있는 전시 『모션 라인』
- 알라닥의 작업 세계를 대표하는 3채널 영상 <흔적 Traces>과 <세션 Session>, 설치 작품 ‘공명기 Resonator’ 연작, <행진곡 (바젤) Marsch (Basel)>과 신작 콜라주 작품 국내 최초 소개
- 강력한 전쟁의 살상무기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알라닥의 <행진곡(바젤)>
-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코드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정체성, 관습과 계층과 같은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를 재고하는 알라닥의 작품 세계
- 더 나아가 ‘소리’에 내재한 허구적 가능성을 영상, 설치, 조각, 퍼포먼스를 통해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 함축적 변위, 은유의 변용을 통해 실험하면서 인식의 새로운 틀 또한 제안
- 사물 스스로가 추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의 관계를 포착한 3채널 영상 <흔적>(2015)과 <세션>(2013)
- 악기와 사운드로 환유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시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동시에 사물과 풍경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알라닥의 지속적인 탐구를 보여주는 영상 <흔적>과 <세션>
- 조각이자 악기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공명기’ 연작은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을 탐색하면서 그 반응으로써 사물/신체의 새로운 소리와 움직임을 함께 모색
-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기원의 건축 양식과 전통 문양, 동물의 발자국 등을 참조, 결합하여 이를 패브릭, 세라믹, 알루미늄 등 각각 다른 재료로 콜라주한 작품 <소셜 패브릭 Social Fabric>(2022), <잘리 Jali>(2020, 2022), <패턴 킨십 Pattern Kinship>(2022) 연작
- 마치 푸가처럼, 이전 작업들과 현재 작업들이 물리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로를 참조하면서 변주되고 증폭되는 네빈 알라닥의 작품 세계
- “많은 사회가 위계질서를 요구하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거부해왔고, 예술 작품을 통해 사물, 음악 그리고 언어를 탈 맥락화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인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 고정된 정체성이란 그저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수 많은 경계와 그 차이에 의해 감각되는 것일 뿐이며, 보이지 않는 감각들을 끝없이 추적하고 변용하면서 독특한 추상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알라닥의 『모션 라인』
- 전시 기간 중, ‘공명기’연작을 활용한 사운드 퍼포먼스 ‘When Sound Draws the Abstract Space’ 두 차례 선보일 예정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2022년 5월 25일(수)부터 7월 24일(일)까지 세계적인 설치 작가 네빈 알라닥의 국내 첫 개인전 『모션 라인 *Motion Lines*』을 선보인다. 전시의 타이틀이기도 한 ‘모션 라인’은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의 소리, 감정,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전후 동작의 흐름을 연결하는 효과이다. 알라닥은 “모션(동작)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진행 상태를, 라인(선)은 어떤 한계를 정의하면서 새로운 패턴과 장소를 만든다. 모션 라인은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작업 세계를 표현했다.

터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독일로 이주한 네빈 알라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상의 사물, 언어에서부터 건축양식, 도시와 자연 풍경에서 작업의 재료를 찾고 이를 설치, 조각,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실험 하면서 소리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관람자의 시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그의 작업 세계는 일차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 관습과 계층 등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재고한다. 또한 더 나아가 ‘소리’에 내재한 허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 함축적 변위, 은유의 변용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경계들을 허물면서 인식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로 알려진 터키 행진곡의 마지막 악장이 갤러리 벽을 따라 확대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네빈 알라닥의 설치 작품 <행진곡 *Marsch, Basel*>(2014)이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악보를 대형 설치 작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작가가 바젤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19세기 포탄들을 94개의 녹슨 철판으로 캐스팅한 설치 작품이다. 음표로 치환된 반구형 대포알들이 하얀 갤러리 벽을 따라 설치되어 하나의 거대한 악보를 만든 <행진곡>은 모차르트 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면서 동시에 대포알이 상징하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강력한 시청각적 이미지 감각으로 전한다.

알라닥은 정치적,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여파가 있던 당대 문화 간의 교차점을 재현한 이 작품을 통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악기들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계속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터키 행진곡」이 작곡된 정치 문화적 배경에 얽힌 문화 패권을 은유적으로 폭로하면서 사물에 내재한 다층적인 맥락을 확장하고, 새로운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생산하고자 했다. 흰 벽 위에 그려진 오선지와 그 선을 따라 박혀 있는 음표들은 누군가에게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리듬의 전율로 혹은 물질에 대한 감각적 경험으로 치환될 것이다.

<행진곡>을 마주하고 서 있는 알라닥의 <공명기 *Resonator*>(2018), <현악기 공명기 *Resonator Strings*>(2019), <타악기 공명기 *Resonator Percussion*>(2019)는 직선, 대각선,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들이 결합된 아상블라주 조각이면서도 작가가 전문 악기 제작자와 협업하여 만든 악기이기도 하다. <공명기>(2018)의 경우, 하프, 만돌린, 어쿠스틱과 베이스 기타, 디저리두, 만돌린, 차임과 같은 현악기, 타악기들이 결합된 복합체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악기 공명기>(2019) 역시 베이스 기타, 첼로, 치터(zither)의 현과 증폭기, 각종 기계들로 제작되었고 <타악기 공명기>는 작은 종들, 가죽, 브론즈를 조합해서 현을 뜯거나 두드릴 수 있는 표면과 소리의 울림통을 만들었다. 소리를 생성하거나 증폭하는 ‘공명기’ 연작은 기본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문화권의 오브제가 혼성된 악기로 그 자체로 소리의 역사를 공유하는 물리적 장소가 된다. 그의 조각은 퍼포머의 퍼포먼스로 인해 악기로 탈바꿈되면서 전시공간 역시 일순간 음악 홀로의 공간적 전환을 맞이한다. 알라닥의 ‘공명기’연작은 조각-악기라는 다중적 정체성과 함께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을 탐색하면서 그 반응으로써 사물/신체의 소리와 움직임을 모색한다.

3 채널 영상 <세션 Session>(2013)은 사물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소리에 집중한 작품으로 작가가 2013년 샤르자 비엔날레 초청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작가는 소리를 통해 도시와 그 요소에 이야기하는 작업을 구상하던 중에 그곳의 사회 경제적 노동력과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파키스탄, 인도, 이라크와 아프리카 이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상 속 악기들은 모두 이민자들의 전통 악기들로서 도시를 대표하는 사회적 존재로 등장한다. 파도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종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정치적 난민들의 삶을, 럭셔리 호텔 안의 스프링클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연주되는 다르부카 소리와 황량한 모래사막 위를 굴러다니는 탬버린과 북소리의 교차와 길가에 우두커니 놓인 쓸쓸한 악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취약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션>은 악기와 사운드로 환유 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시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동시에 사물과 풍경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알라닥의 지속적인 탐구를 보여준다.

이어서 영상 <흔적 Traces>(2015) 이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슈투트가르트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작품 역시 3채널 영상으로 각기 다른 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소리와 함께 중첩되며 전개된다. 나무에 매달린 한 쌍의 트라이앵글 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지는 공원 장면 옆으로 놀이터의 회전무대에 매달린 바이올린과 지면에 고정된 바이올린 활이 기구가 회전할 때마다 여린 선율을 울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와 동시에 빨간색 흔들 목마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탬버린을 연주하는 도시 변화가 배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른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은 공원 한가운데를 신나게 질주하던 북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와 푸른 하늘 위로 날아가는 노란 풍선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간다. 이내 카메라는 이 풍선에 매달린 피리가 ‘빠이익.’ 높은 음을 내며 둥둥 떠오르다가 하강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흔적>이 표현하는 각기 다른 시공간 속 사물의 색채와 형태는 중력, 바람, 공기와 같은 자연 현상 안에서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만든다. <세션>이 샤르자라는 도시의 특정한 맥락이 강조된 작품이라면 <흔적>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가 좀 더 두드러진다. <흔적>의 무빙 이미지는 새로운 미술의 형식을 창안하고자 했던 모더니스트 유토피안 칸딘스키의 페인팅 <구성 8 Composition VIII>(1923)같은 회화적인 구성을 떠올리게 한다. 알라닥의 영상은 사물의 본질을 추출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세계가 아닌 사물 스스로가 추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이다. 이곳에서 인간은 풍경이 되어 조용히 주변부로 밀려난다.

전시장 2층 벽에 설치된 알라닥의 <소셜 패브릭 Social Fabric>(2022), <잘리 Jali>(2020, 2022), <패턴 킨십 Pattern Kinship>(2022) 연작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기원의 건축 양식과 전통 문양, 동물의 발자국 등을 참조, 결합하여 이를 패브릭, 세라믹, 알루미늄 등 각각 다른 재료로 콜라주한 작품들이다. 알라닥의 작업들은 “다양성을 토대로 한 동시대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인 디아스포라 문화 즉, 뿌리, 기원, 소속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맞서서 간주되어 하는, 그리고 장소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또한 알라닥은 ‘라운드 앤 라운드’처럼 단어 반복에 의한 시적 운율감, ‘하이 앤 로우’와 같은 운동감이 느껴지는 단어 조합이나 ‘숲은 봄/가을을 쫓는다’와 같은 계절의 변화를 의인화한 부제를 덧붙이면서 작품의 공감각적 경험을 가속화한다. 이는 언어 실험과 색채 및 형태라는 순수 조형 요소 사이의 긴장 관계 구축을 통해 추상적인 소리와 이미지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라닥은 작품의 외적인 맥락 뿐 아니라 작품 내적 요소 자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시 『모션 라인』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소리를 상상하도록 자극한다. 전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 알라닥의 작품 세계는 유사한 주제와 매체에 점진적인 변주를 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균열과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심화된다. 그의 작품은 마치 푸가처럼 이전 작업들과 현재 작업들이 물리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로를 참조하면서 변주되고 증폭된다. 작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회가 위계질서를 요구하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거부해왔고, 예술 작품을 통해 사물, 음악 그리고 언어를 탈 맥락화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인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라고 밝혔다. 국경을 가르는 경계선, 인종, 국가, 사회 문화적 정체성부터 사물의 기능까지 이제껏 인간이 지어 온 수많은 경계와 이름을 해체하는 알라닥의 세계는 고정된 정체성이란 그저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수 많은 경계와 그 차이에 의해 감각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각들을 끝없이 추적하고 변용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알라닥이 제안한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감각하게 될 것이다.

전시개요

1. 전시기간

- 2022년 5월 25일 (수) - 2022년 7월 24일 (일)
- 10시 - 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2. 전시 장소

- 바라캇 컨템포러리 (종로구 삼청로 7길 36)

3. 예약 및 문의

- info@barakat.kr
- 02) 730-1948
- 다운로드 (이미지) | 웹하드 아이디 barakatseoul | 비밀번호 1234
- 입장 무료 | 월요일 휴관 | 02 730 1948

퍼포먼스 프로그램

When Sound Draws the Abstract Space

네빈 알라닥의 전시 <모션 라인>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4일(토)와 7월 2일(토) 두 차례 진행되는 퍼포먼스 *When Sound Draws the Abstract Space*는 두 명의 국악 연주자 황진아(거문고), 김해나(전통 타악기)가 네빈 알라닥의 조각-악기 <공명기>(2018), <현악기 공명기>(2019), <타악기 공명기>(2019)를 연주하는 사운드 퍼포먼스이다.

본 퍼포먼스는 알라닥의 ‘공명기’ 연작이 악기로서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을 찾으며, 동시에 신체로 확장된 ‘조각-악기’의 다중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악기들이 축적된 알라닥의 ‘공명기’ 연작을 연주하는 퍼포머들은 공간을 가로지르거나 한 지점으로 모이고, 또 퍼져 나가는 움직임과 악기를 두드리고 튕기고 부는 행위들이 수반하는 다양한 동작을 통해 소리의 물리적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이번 퍼포먼스는 이들 행위의 리듬과 동선을 따라 발생하게 될 미지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퍼포먼스는 “모션 라인 -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네빈 알라닥의 세계를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퍼포먼스 예약: contemporary@barakat.kr

- 퍼포먼스 1회차

일시: 2022년 6월 4일 (토), 16:30pm

장소: 바라캇 컨템포러리

- 퍼포먼스 2회차

일시: 2022년 7월 2일 (토), 16:30pm

장소: 바라캇 컨템포러리

1. 작가소개

네빈 알라닥 (b. 1972)



터키 반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독일로 이주해 성장한 네빈 알라닥(b.1972)은 뮌헨 미술원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한다. 알라닥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제57회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도큐멘타 14(독일 카셀, 그리스 아테네), 슈투트가르트 현대미술관(독일), 쿤스트할레 바젤(스위스), 샤르자 비엔날레, 도쿄 현대 미술관(일본), 하우스 데어 쿤스트 뮌헨(독일),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영국),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독일), 제11회 터키 이스탄불 비엔날레, 제8회 타이페이 비엔날레 및 멕시코시티 타마요 현대미술관(멕시코) 등 다수의 국제 기관, 미술관 및 비엔날레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했다. 또한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 센터(프랑스), 샤르자 Sheikh Hoor al-Qasimi 컬렉션(아랍 에미레이트), 슈투트가르트 미술관(독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미국), 뮌헨 피나코텍 모던 미술관 Pinakothek der Moderne(독일), 이스탄불 현대 미술관(터키), 베를린 국립 미술관(독일), 뒤스부르크 미술관(독일) 등 다수의 미술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2. 전시 서문

네빈 알라닥의 『모션 라인 Motion Lines』

2022.5. 25(Wed) - 7. 24(Sun)

반쯤 박힌 포탄들이 즐비한 벽과 이를 마주한 채 늘어선 육중한 사물들 그리고 공기 중에 미세하게 퍼지는 소리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내 스스로 움직이는 사물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색채와 패턴, 기하학적 도형의 충돌은 우리에게 새로운 리듬과 생생한 진동의 감각을 전달한다. 네빈 알라닥의 국내 첫 개인전 『모션 라인 Motion Lines』의 전시 풍경이다. 전시의 타이틀이기도 한 ‘모션 라인’은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의 소리, 감정,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전후 동작의 흐름을 연결하는 효과이다. 알라닥은 “모션(동작)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진행 상태를, 라인(선)은 어떤 한계를 정의하면서 새로운 패턴과 장소를 만든다. 모션 라인은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작업 세계를 표현했다.

터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독일로 이주한 네빈 알라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상의 사물, 언어에서부터 건축양식, 도시와 자연 풍경에서 작업의 재료를 찾고 이를 설치, 조각,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실험하면서 소리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관람자의 시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그의 작업 세계는 일차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 관습과 계층 등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재고한다. 또한 더 나아가 ‘소리’에 내재한 허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 함축적 변위, 은유의 변용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경계들을 허물면서 인식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만약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과 물성이 강조된 악보 앞에서 스스로 소리의 감각을 찾아 나서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로 알려진 「터키 행진곡」의 마지막 악장이 갤러리 벽을 따라 확대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네빈 알라닥의 설치 작품 <행진곡 Marsch>(2014)이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악보를 대형 설치 작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작가가 바젤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19세기 포탄들을 94개의 녹슨 철로 캐스팅한 설치 작품이다. 음표로 치환된 반구형 대포알들이 하얀 갤러리 벽을 따라 설치되어 하나의 거대한 악보를 만든 <행진곡>은 모차르트 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면서 동시에 대포알이 상징하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강력한 시청각적 감각으로 전한다.

알라닥은 정치적,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여파가 있던 당대 문화 간의 교차점을 재현한 이 작품을 통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악기들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계속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터키 행진곡」이 작곡된 정치 문화적 배경에 얽힌 문화 패권을 은유적으로 폭로하면서 사물에 내재한 다층적인 맥락을 확장하고, 새로운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생산하고자 했다. 흰 벽 위에 그려진 오선지와 그 선을 따라 박혀 있는 음표들은 누군가에게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리듬의 전율로 혹은 물질에 대한 감각적 경험으로 치환될 것이다.

<행진곡>을 마주하고 서 있는 알라닥의 <공명기 Resonator>(2018), <현악기 공명기 Resonator Strings>(2019), <타악기 공명기 Resonator Percussion>(2019)는 직선, 대각선,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들이 결합된 아상블라주 조각이면서도 작가가 전문 악기 제작자와 협업하여 만든 악기이기도 하다. <공명기>(2018)의 경우, 하프, 만돌린,

어쿠스틱과 베이스 기타, 디저리두, 차임과 같은 현악기, 타악기들이 결합된 복합체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악기 공명기>(2019) 역시 베이스 기타, 첼로, 치터(zither)의 현과 증폭기, 각종 기계들로 제작되었고 <타악기 공명기>는 작은 종들, 가죽, 브론즈를 조합해서 현을 뜯거나 두드릴 수 있는 표면과 소리의 울림통을 만들었다. 소리를 생성하거나 증폭하는 ‘공명기’ 연작은 기본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문화권의 오브제가 혼성된 악기로 그 자체로 소리의 역사를 공유하는 물리적 장소가 된다.

알라닥의 ‘공명기’ 연작은 인체를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인식하여 가면이나 의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신체를 변형하면서 그것의 건축적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공간과의 관계로 확장했던 오스카 쉐레머의 <3인조 발레 The Triadic Ballet>(1922)의 유산을 이어 받은 듯 하다. 쉐레머의 퍼포먼스처럼 ‘공명기’ 연작을 두드리고 불고 튕기고 이동하는 퍼포머의 신체(손, 발, 입) 접촉은 작품을 기계-인간의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조각이 악기로 탈바꿈하면서 전시공간 역시 일순간 음악 홀로의 공간적 전환을 맞이한다. 이처럼 알라닥의 ‘공명기’ 연작은 퍼포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조각-악기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을 탐색하면서 그 반응으로써 사물/신체의 새로운 소리와 움직임을 모색한다.¹

3 채널 영상 <세션 Session>(2013)은 사물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소리에 집중한 작품으로 작가가 2013년 샤르자 비엔날레 초청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작가는 소리를 통해 도시와 그 요소에 이야기하는 작업을 구상하던 중에 그곳의 사회 경제적 노동력과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파키스탄, 인도, 이라크와 아프리카 이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상 속 악기들은 모두 이민자들의 전통 악기들로써 도시를 대표하는 사회적 존재로 등장한다. 파도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종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정치적 난민들의 삶을, 럭셔리 호텔 안의 스프링클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연주되는 다르부카 소리와 황량한 모래사막 위를 굴러다니는 탬버린과 북소리의 교차와 길가에 우두커니 놓인 쓸쓸한 악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취약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도심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움직임과 소리를 생성하는 악기들은 이식되고 전치된 채 유랑하는 정치적 난민들과 노동자들의 고된 삶을 대변한다. <세션>은 악기와 사운드로 환유 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시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동시에 사물과 풍경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알라닥의 지속적인 탐구를 보여준다.

영상 <세션>에 이어, <흔적 Traces>(2015) 이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슈투트가르트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작품 역시 3채널 영상으로 각기 다른 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소리와 함께 중첩되며 전개된다. 나무에 매달린 한 쌍의 트라이앵글 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지는 공원 장면 옆으로 놀이터의 회전무대에 매달린 바이올린과 지면에 고정된 바이올린 활이 기구가 회전할 때마다 여린 선율을 울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와 동시에 빨간색 흔들 목마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탬버린을 연주하는 도시 변화가 배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른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은 공원 한가운데를 신나게 질주하던 북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와 푸른 하늘 위로 날아가는 노란 풍선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간다. 이내 카메라는 이 풍선에 매달린 피리가 ‘빠이익-’ 높은 음을 내며 동동 떠오르다가 하강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흔적>이 표현하는 각기 다른 시공간 속 사물의 색채와 형태는 중력, 바람, 공기와 같은 자연 현상 안에서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만든다. <세션>이 샤르자라는 도시의 특정한 맥락이 강조된 작품이라면 <흔적>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가 좀 더 두드러진다. <흔적>의 무빙 이미지는 새로운 미술의 형식을 창안하고자 했던 모더니스트 유토피안 칸딘스키의 페인팅

1. 한편 알라닥의 신체와 움직임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 신체의 조각적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의 예시로 그의 퍼포먼스 <신체 악기 Body Instruments>(2021)를 들 수 있다. 이 퍼포먼스는 양 팔과 두 다리에 아코디언과 종, 머리에는 타악기를 착용한 퍼포머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특정한 장소에 내려 몸을 움직이는 퍼포먼스다. 배에서 내린 퍼포머는 고개를 돌리거나, 건너, 팔 다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고 그 소리의 중심이 몸에서 악기로 전환되는 순간을 포착한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구성 VIII〉(1923)같은 회화적인 구성을 떠올리게 한다. 알라닥의 영상은 사물의 본질을 추출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세계가 아닌 사물 스스로가 추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이다. 이곳에서 인간은 풍경이 되어 조용히 주변부로 밀려난다.

미디어 철학자 빌렘 플루서는 (사물과 인간의) 몸짓의 관찰은 우리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읽어낼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몸짓이 나타날 경우 그것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읽어낼 열쇠라고 언급한 바 있다.² 알라닥의 〈행진곡〉과 〈공명기〉 연작 그리고 〈세션〉, 〈흔적〉의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은 새로운 도구로서 사물의 정체성과 소리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그것의 문제적 측면을 현실 세계로 개입시키기 위한 수행적 행위이다. 특히나 알라닥이 작업의 주요 재료이자 매체로 소리에 천착하는 것은 필시 그것의 성질이 영토나 신체의 범주를 초월한 가장 유동적이며, 언어나 지식체계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형태의 사유가 가능하고 다양한 감각기관으로 확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알라닥의 〈소셜 패브릭 *Social Fabric*〉(2022), 〈잘리 *Jali*〉(2020, 2022), 〈패턴 킨십 *Pattern Kinship*〉(2022) 연작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기원의 건축 양식과 전통 문양, 동물의 발자국 등을 참조, 결합하여 이를 패브릭, 세라믹, 알루미늄 등 각각 다른 재료로 콜라주 하면서 변형과 소속감에 대해 실험한다. 파편화된 개별 요소가 작가의 선택으로 모여 전체를 모방하는 구축물이기도 한 그의 작품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연결됐지만 개념적으로 여전히 균열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픽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 중에서 알라닥의 작업 세계는 “다양성을 토대로 한 동시대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인 디아스포라 문화 즉, 뿌리, 기원, 소속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맞서서 간주되어 하는, 그리고 장소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³ 사회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또한 알라닥은 ‘라운드 앤 라운드’처럼 단어 반복에 의한 시적 운율감, ‘하이 앤 로우’와 같은 운동감이 느껴지는 단어 조합이나 ‘숲은 봄/가을을 쫓는다’와 같은 계절의 변화를 의인화한 부제를 덧붙이면서 작품의 공감각적 경험을 가속화한다. 이는 언어 실험과 색채 및 형태라는 순수 조형 요소 사이의 긴장 관계 구축을 통해 추상적인 소리와 이미지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라닥은 작품의 외적인 맥락 뿐 아니라 작품 내적 요소 자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션 라인』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소리를 상상하도록 자극한다. 전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 알라닥의 작품 세계는 유사한 주제와 매체에 점진적인 변주를 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균열과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심화된다. 그의 작품은 마치 푸가처럼 이전 작업들과 현재 작업들이 물리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로를 참조하고 변주되며 또한 증폭된다. 작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회가 위계질서를 요구하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거부해왔고, 예술 작품을 통해 사물, 음악 그리고 언어를 탈 맥락화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인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⁴ 라고 밝혔다. 국경을 가르는 경계선, 인종, 국가, 사회 문화적 정체성부터 사물의 기능까지 이제껏 인간이 지어 온 수많은 경계와 이름을 해체하는 알라닥의 세계는 고정된 정체성이란 그저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수 많은 경계와 그 차이에 의해 감각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각들을 끝없이 추적하고 변용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알라닥이 제안한 “음악, 형태, 움직임이 모두 결합된 생생한 이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감각하게 될 것이다.

2. 빌렘 플루서, 『몸짓들: 현상학 시론』, 안규철 옮김, 김남시 감수, 위크롬, p.207

3. “Sound Cast in Iron, Sand Blowing in the Wind” in Adam Szymczyk, *Nevin Aladag: Sound of Spaces* (Hatje Cantz, 2022), p. 257

4. Walter D. Mignolo, “Raising The Roof”, conversation with *Nevin Aladag, Ibraaz*(27 Feb, 2014)

<https://www.ibraaz.org/interviews/116>

PRESS RELEASE

Nevin Aladağ *Motion Lines*

May 25 (Wed) - July 24 (Sun), 2022

- Nevin Aladağ's *Motion Lines*, voices a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change of perception in the present era, which has gone through times of crisis and disaster.
- *Motion Lines*, an international artist based on Berlin Nevin Aladağ's very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 *Motion Lines*, where we can encounter Nevin Aladağ's world of the vivid image that combines music, shape, and movements
- "Motion is a state of progression from one place to another. A line or many lines can define limitations or create new patterns and places. This compound word 'motion lines' is describing a vibrant image in which music, shape and movement are all combined."
- The exhibition *Motion Lines* explores the potentiality of sounds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video, performance, sculpture, and installation.
- *Motion Lines*, where we can sense the new rhythms and vivid vibration through a collision between variegated colours, patterns and geometrical shapes
- *Motion Lines* introduces the artist's artwork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cluding Aladağ's representative of her world of works - three-channel video *Traces* and *Session*, Installation series *Resonator*, *Marsch(Basel)*, and her new collage works.
- Nevin Aladağ's *Marsch(Basel)*, a transform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to terribly beautiful music.
- By Interpreting diverse cultural and political codes in a personal way, the artist tries to suggest reexamining various issues of social structure - identity, convention, and class.
- Going further, the artist discovers the fictional possibilities inherent in 'sound' through film, installation, sculpture, and performances, and suggests a new frame of perception experimenting with them through a new language, implicit displacement, and metamorphosis of a metaphor.
- The world in which objects themselves create abstraction; three-channel video *Traces* (2015) and *Session* (2013) cap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ving images and sound.
- *Traces* and *Session* show Aladağ's endless exploration of the infinite artistic possibilities of sound created by objects and landscapes while poeticising the cultural identity metonymically presented instruments and sounds.
- *Resonator* series - that has multilayered identities as sculpture and musical instrument - explores the space in which the artwork exists searching for new sounds and movements of the object/body together in response.
- Sound performance using the *Resonator* series will be performed twic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 *Social Fabric* (2022), *Jali* (2020, 2022), *Pattern Kinship* (2022), a series of collage works using fabric, ceramic, and aluminum, referencing, and combining architectural styles, traditional patterns, and animal footpri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cross geographical boundaries.

- Like a fugue, her past and present works become varied and amplified through their mutual referencing as they move freely across physical boundaries.
- “Even though many societies dictate a hierarchy, I always refused it may be with my works of art I sometimes try to find new ways of communicating shifting perceptions by decontextualizing and reformulating objects, music and language.”
- Fixed identity is merely something that we perceive because of the many boundaries and differences created by social systems, Nevin Aladağ endlessly traces and transforms these unseen perceptions, she forms an abstract world that is all her own in *Motion Lines*.
- The sound performance ‘*When Sound Draws the Abstract Space*’ playing the *Resonator* series will be performed twic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Nevin Aladağ *Motion Lines*

Barakat Contemporary is pleased to present international artist Nevin Aladağ’s very first exhibition *Motion lines* in Korea, from 25th May (Wed) to 24th July (Sun) 2022. The “motion lines” in the exhibition title are used in animation to represent the movements of characters and objects; they serve to express sounds, emotions, and motions and to connect movements in sequence. Describing her artistic work, Aladağ says, “Motion is a state of progression from one place to another. A line or many lines can define limitations or create new patterns and places. This compound word [motion lines] is describing a vibrant image in which music, form and movement are all combined.”

A native of Turkey, Nevin Aladağ moved to Germany at a young age. Since the late 1990s, she has looked toward everything from everyday objects and language to architectural styles and urban and natural landscapes as material for her work,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sound as she experiments with various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sculpture, video, and performance. The work provokes audiovisual experiences in the viewer while primarily reexamining different structural issues that emerge within capitalist system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ultural identity, conventions, and class. She also uncovers the fictive potentiality inherent to sounds, presenting a new framework for perception as she breaks down real-world boundaries through new language, allusive displacement, and transformation of metaphor.

Spread out in enlarged form along the gallery’s walls is the final movement of *Rondo alla Turca*, also known as Mozart’s *Piano Sonata No. 11 in A Major*. This is Aladağ’s installation work *Marsch(Basel)* (2014). To transform Mozart’s Rondo score into a large-scale installation, the artist made 94 rusted bronze casts of 19th-century cannonballs from the Basel Historical Museum. As the musical notes are replaced with the hemispheres of cannonballs installed on the white gallery wall like one large musical score, *Marsch(Basel)* is an opportunity to physically experience Mozart’s beautiful melody, yet one that also uses a powerful visual and auditory sense to convey the devastating reality of war symbolized

by the cannonballs.

As this work represents the intersection between political and military clashes and the cultural milieu under the influence of armed conflict, *Aladağ* expresses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music, conveying how music and instruments have been performed across boundaries of countries and peoples even during the times of war. By metaphorically exposing the cultural hegemony intertwined with the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of Rondo's composition, she seeks to expand the multilayered context within the object and forge possibilities for a new narrative. The staff on the white wall and the notes embedded in its lines will transform for some people into the horrors of war; for others, they will convey the excitement of rhythm or a sensory experience of the matter.

Standing across from *Marsch* are *Aladağ's Resonator* (2018), *Resonator Strings* (2019), and *Resonator Percussion* (2019). These are assemblage sculptures combining geometric shapes such as straight lines, diagonals,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but they are also instruments produced by the artist in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s in instrument-making. *Resonator*, for example, is a combination of string and percussion instruments, including the harp, mandolin, acoustic and bass guitars, didgeridoo, and chimes; depending on the performer, it is capable of producing assorted sounds. *Resonator Strings* was similarly produced with bass guitar, cello, and zither strings, an amplifier, and various pieces of machinery, while *Resonator Percussion* has small bells, leather, and bronze put together to create a surface and soundbox that can be plucked or pounded. With its production and amplification of sounds, the *Resonator* series becomes a physical setting for sharing the history of sound through instruments that combine objects created by diverse cultural spheres in order to produce sounds transcending space and time. With the metamorphosis of sculpture into instruments, the exhibition setting itself undergoes a spatial transformation into a musical hall. In this way, the works in *Aladağ's* series gain the multilayered identity of "sculpture-instruments" through their physical contact with the performers, investigating new sounds and movements of objects/bodies through their exploration of and reaction to the space in which they are present.

The three-channel video work *Session* (2013), which focuses on the movements and sounds created by objects, was produced by the artist as a part of the invitation of the 2013 Sharjah Biennial. As she was conceiving a work that would use sound to explore the city and its elements, *Aladağ* observed how much of the economic workforce and cultural heritage in that society rested on the foundation of Pakistani, Indian, Iraqi, and African migrant communities. The instruments in the video are all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f those migrants' respective cultures, appearing there as social entities representing the city. The bells traveling over the waves recall the lives of political refugees forced to risk their lives crossing the ocean; the sound of a *darbuka* (goblet drum) played by droplets falling from the sprinkler in a luxury hotel lawn, the juxtaposition of drumming with a tambourine dragging over desolate desert sands, and the plaintive image of instruments sitting by the side of a road allude symbolically to the identity and vulnerable reality of migrants who do not have any place where they "belong." The instruments produce movements and sounds as they travel through the city, and in the process they represent the difficult lives of political refugees and workers set adrift, transplanted and displaced. A poetic examination of cultural identity as symbolized by instruments and sound, *Session* also exemplifies *Aladağ's* ongoing explorations of the infinite artistic possibilities of the sounds realized by objects and

landscapes.

After *Session* comes *Traces* (2015), which i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Stuttgart, the city where the artist spent her childhood. Also a three-channel video work, it shows the events taking place at three different locations, which overlap with different sounds. Next to a park where a pair of triangles dangle from a tree, tinkling as the wind blows, we see a scene where a violin hangs from a playground's revolving stage, while a bow fixed to the ground produces a delicate melody each time the stage revolves. At the same time, we also see the backdrop of the main city street where a red rocking horse plays a tambourine while moving back and forth. In the next scene, the camera angle quietly follows the movements of a yellow balloon against an azure sky, with the muffled sound of a drum striking the ground as it spiritedly races through a park. The camera then captures a flute dangling from the balloon, letting out a high-pitched sound as it floats up and down. The colors and shapes of objects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that *Traces* presents create different sounds and movements amid natural phenomena such as gravity, wind, and air. Where *Session* emphasizes the specific context of Sharjah as a city, *Traces* assigns greater promine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sound. The moving images in *Traces* recall the pictorial composition like *Composition VIII* (1923) by Wassily Kandinsky, a modernist Utopian who sought to devise a new artistic form. Aladağ's video is not a world that distills the essence of objects or seeks to transcend them; it is a world in which the objects themselves create abstractions. Human beings here are part of the landscape, quietly relegated to the periphery.

Installed on the wall of the second floor of the exhibition hall - Aladağ's series of *Social Fabric* (2022), *Jali* (2020/2022), and *Pattern Kinship* (2022) reference and combine architectural styles, traditional patterns, and animal footprints from different cultural origins across geographical boundaries. Through a collage approach using different materials such as fabric, ceramics, and aluminum, the work experiments with transformation and the sense of "belonging." The artist's works are also structures in which fragmentary elements come together through her choices to imitate a whole; though they are elaborately connected in technical terms, there are still cracks that exist in conceptual ones, and in that sense they predict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fiction. Among these different possibilities, Aladağ's body of work forms a sociocultural narrative that "addresses peoples and cultures of diaspora, which is an important and in fact crucial aspect of a contemporary identity that thrives on diversity, that is placeless and that has to be considered against the old notions of roots, origins, belonging." Aladağ further encourages the synesthetic experience of her work by giving it subtitles that convey a sense of poetic rhythm based on repetition (*Round and Round*), combine words with a sense of movement (*High and Low*), or personify seasonal changes (*Forest Follows the Spring or Fall*). She is building a world of abstract sounds and images by creating a relationship of tension between her linguistic experiments and purely aesthetic elements of color and shape. In the process, she encourages the viewer to focus not only on her work's external context, but also on its internal elements.

Motion Lines spurs us to imagine unseen movements and sounds. As can be seen in the exhibition, Aladağ's body of work attains deeper dimensions as it continues to reveal the cracks and gaps that arise amid gradual variations on similar themes and media. Like a fugue, her past and present works become varied and amplified through their mutual referencing as they move freely across physical boundaries. In an interview, the artist said, "Even though many

societies dictate a hierarchy, I always refused it and maybe with my works of art I sometimes try to find new ways of communicating shifting perceptions by decontextualizing and reformulating objects, music and language.”

Deconstructing the countless boundaries and names that human beings have created to date—from national borders and racial, national,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to the functions of objects—her work tells us that fixed identity is merely something that we perceive because of the many boundaries and differences created by social systems. As she endlessly traces and transforms these unseen perceptions, she forms an abstract world that is all her own. Within that, we will be able to imagine and sense the world that Nevin Aladağ presents: one of “vivid images combining music, shape, and movement.”

Overview of the Exhibition

1. Date

- Wednesday, May 25 – Sunday, July 24, 2022
- 10:00 - 18:00 | Tuesday - Sunday

2. Address

- 36, Samcheong-ro 7-gil, Jongno-gu, Seoul, Korea

3. Inquiry

- info@barakat.kr
- +82 2 730 1948

Nevin Aladağ: *Motion Lines* _ Performance *When Sound Draws the Abstract Space*

As a part of Nevin Aladağ’s exhibition *Motion Lines*, two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 Hwang Gina (*kömungo*) and Hannah Kim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will give a sound performance playing Aladağ’s sculpture-instrument, *Resonator* (2018), *Resonator Strings* (2019), and *Resonator Percussion* (2019) on 4th June (Sat), and 2nd July (Sat) 2022.

This performance will be a place for exploring the multilayered identity of the ‘sculpture-instrument’, extended to the body while seeking Aladağ’s *Resonator* series’s new possibilities of sound as instruments. Performers, who play the Aladağ’s series that accumulates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from diverse cultures, cross the space or gather at a single point, and create physical movements of sound through various acts accompanied by spreading movements and pounding, plucking, and blowing the instruments. This will be a time to listen to the unknown sounds that will occur along with the rhythm and movements of the performers. Ultimately, we expect this performance to be a time to expand the

artistic world of Nevin Aladağ, who imagines “the vivid images combining music, shape, and movements,” to another dimension, and to the world of audiences watching the performance.

1st Performance Session

Date: 4th June 2022 (Sat) 16:30

Location: Barakat Contemporary

2nd Performance Session

Date: 2nd July 2022 (Sat) 16:30

Location: Barakat Contemporary

Reservation: contemporary@barakat.kr

1. About the Artist

Nevin Aladağ (b. 1972)



Born in 1972 in the Turkish city of Van, Nevin Aladağ moved at a young age to Germany, where she grew up. She majored in sculpture at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and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erlin. She has taken part in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numer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t museums, and biennial events, including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USA); the 57th Venice Biennale (Italy), Documenta 14 (Kassel, Germany; Athens, Greece); the Kunstmuseum Stuttgart (Germany); the Kunsthalle Basel (Switzerland); the Sharjah Biennial (United Arab Emirates);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Japan); the Haus der Kunst (Munich, Germany); the Hayward Gallery (London, UK); the Martin-Gropius-Bau (Germany); the 11th Istanbul Biennial (Turkey); the 8th Taipei Biennial (Taiwan); and the Museo Tamayo Arte Contemporáneo (Mexico City, Mexico). Her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many institutions and galleries, including the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the Sheikha Hoor al-Qasimi collection (Sharjah, UAE); the Kunstmuseum Stuttgart (Germany);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USA); The 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Germany); the Istanbul Museum of Modern Art (Turkey); the Nationalgalerie (Berlin, Germany); and the Lehmbruck Museum (Germany).

2. Main Works



Resonator, 2018, wood, metal, leather, harp, chimes, drums, didgeridoos, acoustic and bass guitar, mandolin mechanisms and strings, 314 cm x 242 cm x 228 cm



Traces, 2015,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6 min



Social Fabric, Round & Round, 2022, Collage with carpets of different origin and texture, 104 cm x 4cm

3. Installation



Nevin Aladag: *Motion Lines*, 2022, installation view, Barakat Contemporary



Nevin Aladag: *Motion Lines*, 2022, installation view, Barakat Contemporary



Nevin Aladag: *Motion Lines*, 2022, installation view, Barakat Contemporary